

韓國心理學會誌 : 發達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Developmental

1999. Vol. 12, No. 2, 35-48.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분석 연구*

-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 검증을 중심으로 -

염 현경

김태련

배화여자대학 유아교육과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에 대한 후속연구로서 척도개발을 위한 최종문항을 추출하고 그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예비연구에서 이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을 위해 31개 문항이 선정되었으며 '불안좌절감', '자존감 상함', '비난 공격적 상황에 접함'의 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예비연구에서 선정된 31개 문항에 대해 예비연구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3-6세 유아 554명에게 본검사를 실시하였고, 유아의 담임 교사로 하여금 아동 행동을 관찰 평가하도록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전체 $\alpha = .80$ 이었으며, 각 요인별로는 .62, .68, .66을 나타내었다.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내용 타당도, 구성개념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내용 타당도는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에 의해 검증되었다. 구성개념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요인분석, t-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예비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요인으로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문항수는 31개에서 23개로 축소되었고 전체 설명분산 값은 79.73%를 나타내었다. 요인 간 상관계수는 .45, .52, .26을 나타내었다.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 검증을 위해 집단 간 차이검증을 t-검증으로 실시한 결과, 정상 가정 유아 집단과 결손 가정 유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1$).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제작되지 않은 학령 전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였고 그 타당도를 검증하였다는 점, 그리고 유아가 직접 응답하는 체계로 척도를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작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재검증하기 위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보다 많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 스트레스와 적응의 문제는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관심의 영역이 되고 있다. 스트레스의 개념은 수세기동안 존재하여 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체계적으로 개념화되었고 연구의 주제가 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스트레스가 군대의 전투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그 이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또한, 스트레스 개념은 심리학 뿐만 아니라 보건분야에서 한층 더 폭넓게 논의되고 있으며, 경제학, 정치학, 산업 및 교육분야에서도 이 개념을 찾아 볼

* 이 논문은 1998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더구나, 스트레스는 성인 뿐 아니라 유아에게도 보편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속출하고 있으며(Barton & Zeanah, 1990; Henniger, 1994; Wiedey & Lichtenstern, 1987; Zimiles, 1986) 유아뿐 아니라 영아와 신생아 그리고 태아까지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보고하였다(Davis & Emory, 1995; Gunnar, Porter, Wolf, & Rigatuso, 1995; Huffman & Carmen, 1990; Lobo, 1990).

Huffman과 Carmen(1990)은 임신 중에 있는 산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태아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음과 임신 중에 어머니가 경험한 스트레스는 태어난 아기가 자라 아동이나 청년이 된 이후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여러 학자들이 이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보였으며 스트레스와 부적응 행동 간 상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발달에서 스트레스적 사건의 영향은 아동이 그 일이 일어난 시기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즉, 급성적 혹은 만성적 스트레스가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면, 발달적 요소들은 스트레스에 저항하고 대처하는 아동의 능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Trad & Greenblatt, 1990).

스트레스는 그 자극의 강도에 따라 '중대한 생애 사건(major life event)'과 '일상적 스트레스(everyday stress or daily hassles)'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Band & Weisz, 1988; Lazarus & Folkman, 1984), 그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자에 의해 이미 결과가 보고되었다(Barton & Zeanah, 1990; Chandler, 1987; Johnson & Rornstein, 1991; Lazarus & DeLongis, 1983; Lazarus & Folkman, 1984; O'Brien & Iannotti, 1990; Parfenoff & Jose, 1989; Waters, Rubman & Hurry, 1993). 이에 대해 최근에 중대한 생애 사건보다는 일상적 문제거리로 인

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더 잘 예측해 준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Johnson & Rornstein, 1991; Lazarus & DeLongis, 1983; Lazarus & Folkman, 1984; Waters, Rubman, & Hurry, 1993). 따라서, 유아도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사소하지만 부담스런 일들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꾸중 듣는 것, 병원에 가는 것, 친구가 놀리는 것에서 유아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O'Brien & Iannotti, 1990; Parfenoff & Jose, 1989). 이러한 일상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매일의 스트레스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누적되므로 유아의 적응과 정신건강, 신체적 질병 등과 상관이 있다. 따라서, 일상 생활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 유아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염현경(1998)은 한국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제작하기 위한 기초 연구에서 유아 600명과 학부모 732명, 그리고 유치원 원장과 교사 47명을 대상으로 하여 일상 생활에서 유아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에 대해 자유응답 형식으로 응답하게 하여 분류·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아는 좌절감을 느끼거나 화가 나거나 무섭거나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거나 긴장감이 유발되는 상태에서 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란 유아가 일상 생활을 할 때 경험하는 사소하지만 부담스런 사건들로서 유아로 하여금 좌절감이나 분노심, 공포심, 우울감, 소외감, 불안감, 압박감, 거부감, 긴장감 등을 유발시키는 상태라 정의할 수 있다.

유아의 스트레스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며, 유아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신체적·정신적 부적응 행동으로 나타난다(Burts, Hart, Charlesworth & Kirk, 1990; Elkind, 1981; Haapasalo & Tremblay, 1994; O'Brien, 1988; Warm, 1989). 따라서, 유아의 스트레스 요인을 미리 예방하고 일상 생활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 문제 행동을 방지·감소할 수 있다.

유아의 스트레스와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검토해 보면 결손가정의 경우 정상환경의 가정 자녀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이혼은 유아의 적응에 직접적·장기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 의해 입증되었다. 이혼 가정의 자녀는 정상 가정의 자녀에 비해 심리적 적응, 학업성취, 행동, 대인관계 면에서 더 많은 문제를 나타낸다(Amato & Booth, 1991; Demo & Alan, 1988; Kurdek & Blisk, 1983).

Honing(1986)은 부모의 이혼이 자녀 스트레스 요인으로 영향을 미침을 지적하였다. Hodges, London과 Colwell(1990)은 이혼 가정과 정상 가정의 자녀 적응에 대해 연구한 결과,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정상 가정 자녀들보다 적응력이 떨어짐을 보고하였고, Ethier와 Freiniere(1993)는 32개 편부모 가정과 43개 정상 가정의 3~4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편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더 공격적임을 보고하였다.

Wallerstein과 Kelly(1982)는 2~5세된 60개 이혼 가정의 자녀 131명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한 결과, 그들은 놀라고 슬픈 모습을 보였으며 강렬한 자기 비난과 공격성이 증가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Hetherington, Cox와 Cox(1982)도 144개 종류의 이혼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첫 2년 동안을 종단 연구한 결과, 자녀들이 심리적 고통과 건강문제, 행동 상의 문제를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특히, 이혼한 가정의 남아는 여아보다 행동 문제를 더 많이 나타냈으며, 가정과 학교에서 불응(noncompliance)의 자세를 보였고 학업성취의 어려움과 또래 관계에서의 문제를 나타냈다.

종단 연구에서 이혼의 영향은 부모와의 이별 후 첫 1년 혹은 2년 동안에 가장 강하게 나타냄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1·2년이 훨씬 지난 수년 후에도 이혼 가정의 아동은 정상 가정의 아동보다 더 많은 문제 행동을 나타냈다(Amato & Booth, 1991).

예를 들어 Hetherington, Cox와 Cox(1985)는 6년 동안의 종단 연구에서 부모 이혼 후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남아가 여아에 비해 행동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계속해서 나타내었음을 보고하였고, 반면 부모의 재혼은 여아의 행동 문제와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결손 가정의 자녀는 정상 가정의 자녀에 비해 심리적 안정 및 적응·학업성취·행동 면에서 더 많은 문제를 나타내며, 부모 이혼의 경험은 자녀에게 장기적 영향을 미쳐 성인기의 생활에까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국내 자료로 수집하여 제작하고 그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자가 검토해 본 결과 국내의 유아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 연구 대부분이 외국의 척도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일부 문항에 대해 내용 타당도 검증 과정만을 거쳐 한국 유아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정도였다. 더욱이 외국의 초등학교 연령용으로 제작된 스트레스 척도를 국내 유치원 연령의 유아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문화·연령에 맞지 않는 문항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료 조사에서부터 만 3~6세 한국 유아들이 재원 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개방식 질문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과 절차를 단계별로 거쳐 한국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제작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최종 요인 구조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요인간 상관은 어떠한가?

셋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넷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로 정상 가정

유아와 결손 가정 유아 간 차이를 검증할 수 있는가?

방법

1. 연구 대상

본 조사에서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유치원 6곳과 어린이집 7곳에 재원 중인 만 3-6세 정상유아 389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집단 간 차이 비교를 위해 이혼가정과 편부모 가정의 유아 4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유아의 연령과 성별 분포에 대해서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 유아의 연령과 성별 분포

남		여		계		
N	%	N	%	N	%	
3세	8	2.06	9	2.31	17	4.37
4세	60	15.42	46	11.83	106	27.25
5세	81	20.82	88	22.62	169	43.44
6세	53	13.63	44	11.31	97	24.94
계	202	51.93	187	48.07	389	100.00

2. 척도 제작 절차 및 실시방법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결과 추출된 31개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를 3차 예비검사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염현경, 1998) 각 유아의 담임 교사에게 의뢰하여 유아에게 검사를 실시하였다. 유아가 응답한 자료를 회수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23개 문항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검사의 실시 방법 및 절차는 예비연구(염현경, 1998)의 방식과 동일하다.

검사를 실시하는 담임 교사에게 검사 실시 방법과 절차, 그리고 검사 실시상의 유의 사항에 대해 유인물을 배부하고 충분히 설명하였다(염현경, 1998).

본 연구에서 제작하는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Korean Preschool Daily Stress Scale: KPDSS)의 검사 도구는 검사지와 보조 자료인 그림 검사 자료,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 평정 그림 자료로 되어있다. 유아들에게는 연령 특성상 검사자가 언어적으로만 질문하는 것보다 그림 검사 자료를 보조적으로 이용하면서 면접을 통해 검사를 실시할 때 훨씬 더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Blascovich & Tomaka, 1991). 이러한 장점이 있으므로 Harter와 Pike(1980, 1983)는 유아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 검사 자료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유아들로 하여금 문항 내용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돋도록 하기 위하여 그림 검사 자료를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이 그림 검사 자료는 여아용과 남아용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다. 만 3-6세 유아용(개별검사용)으로 제작되었으며 검사 소요시간은 약 15-20분이다.

각 그림카드의 뒷면에는 해당 그림의 내용을 나타내는 문항 내용이 적혀 있어 검사 실시자로 하여금 용이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즉, 검사자가 뒷면에 적힌 문항 내용을 유아에게 읽어주면서 그림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방식 질문지를 통하여 문항을 만들고 내용 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친 후 1·2·3차 예비검사를 통해 문항을 축소시켰다. 그 후, 본검사에서 요인분석한 결과 3개 요인, 23개 문항으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4점 척도(0: 스트레스를 받지 않음 - 3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로 되어 있으므로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69점 까지이다.

3. 자료 분석

척도의 문항변별도 분석을 위해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문항내적 일치도 지수인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고 요인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정상 가정 유아 집단과 결손 가정 유아 집단의 집단 간 차이를 t-검증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자료 분석을 위해 SAS와 SPSSPC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결과

1. 문항-총점상관계수

31개 문항으로 먼저 척도의 문항 변별도 분석을 위해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 <표 2>과 같다.

<표 2> 유아 스트레스 검사의 문항-총점상관계수

문항 번호	문항-총점 상관계수	문항 번호	문항-총점 상관계수	문항 번호	문항-총점 상관계수
1	.36	12	.18	23	.35
2	.29	13	.38	24	.37
3	.24	14	.38	25	.33
4	.34	15	.30	26	.33
5	.27	16	.41	27	.42
6	.32	17	.31	28	.36
7	.35	18	.14	29	.16
8	.35	19	.42	30	.22
9	.40	20	.37	31	.37
10	.22	21	.39		
11	.28	22	.32		

<표 2>에서 보듯이 12번, 18번, 29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문항-총점 상관계수에서 $r=.20$ 이상을 나타냈다. 따라서 31개 문항 중 12번·18번·29번 문항을 제외한 28개 문항을 대상으로 구성개념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 신뢰도

본 연구에서 제작한 유아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신뢰도 계수는 $\alpha=.80$ 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62, .68, .66을 나타냈다 (<표 5> 참조).

3. 타당도

1) 구성요인 분석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고 요인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 연구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20 이상되는 28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28개 문항에 대한 측정 결과에 공통분산 뿐만 아니라 문항 특유의 분산과 측정시의 오차가 포함된 고유분산이 상당한 정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공통 요인 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의 모형을 택하였으며 다중상관제곱치(SMC)를 공통분의 추정치로 사용하였다. 또한, 기초 구조의 추출을 위해 단일 주축분해법을 사용하였다.

기초 요인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사전도 해(preplot)를 살펴본 결과 요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사각회전(hkp=0.0)을 시행하였다. 또한, 누적분산퍼센트, 스크리 검사, 해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요인의 수효를 결정하였는데 그 결과, 세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5> 참조).

척도의 구조계수행렬과 요인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본

<표 3> 유아 스트레스 척도의 구조계수행렬과 요인분석 결과표

문항 번호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분(h ²)
10	.566	.165	.058	.343
11	.518	.226	.156	.272
31	.496	.375	.239	.266
13	.453	.356	.281	.231
8	.385	.364	.222	.187
7	.335	.356	.291	.164
26	.273	.327	.273	.127
24	.177	.491	.263	.262
16	.197	.509	.347	.265
9	.251	.480	.288	.234
25	.123	.417	.292	.185
15	.111	.373	.298	.150
1	.350	.395	.211	.191
3	.192	.292	.134	.096
4	.237	.366	.254	.137
27	.259	.448	.381	.212
14	.281	.392	.335	.171
19	.174	.406	.671	.458
21	.162	.395	.546	.299
20	.242	.343	.497	.258
22	.065	.356	.516	.278
23	.073	.401	.429	.224
6	.237	.346	.369	.159
고유분산	1.060	1.101	.895	
합성분산	2.300	3.844	3.144	
고유치	4.171	1.085	.553	전체
설명분산	19.00%	34.86%	25.87%	79.73%

척도는 세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추출기준은 요인 부하량 값 0.3을 기준으로 하면서 이중으로 부하량 값이 겹치지 않는 문항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3번 문항('집에 혼자있는 것')은 예비 연구 결과와 내용 타당도 검토를 고려하여 부하량 값이 .292이지만 척도의 문항으로 포함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요인의 설명분산 값을 살펴보면 요인 2인 '불안-좌절감 경험함'이 34.86%로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요인 3인 '자존감 상함'(25.87%), 요인 1인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19.00%)의 순임을 알 수 있다. 전체 설명분산 값은 79.73%로서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표 4>에서는 척도의 요인 간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표 4>에서 보듯이 요인 간 상관계수 값은 각각 .45, .26, .52로서 요인 간 상호상관이 존재함을 나타냈다.

<표 4> 유아 스트레스 척도의 요인 간 상관계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1	1.00		
요인2		.45	1.00
요인3		.26	.52
			1.00

<표 5>에는 유아 스트레스 척도의 요인별 문항 내용 및 신뢰도 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요인구조에서 요인 1은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으로, 요인 2는 '불안-좌절감 경험함'으로, 요인 3은 '자존감 상함'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밝혀진 이러한 요인구조는 예비 연구 결과에서 보인 요인구조와 일치함을 나타냈다(염현경, 1998). 또한, 문항의 내용에 대해 요인별로 검토하여 보면 내용상 타당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요인은 5개 문항, 2요인은 12개 문항, 3요인은 6개 문항으로서 전체 총 23개 문항으로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가 구성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5> 유아 스트레스 척도의 요인별 문항 내용 및 신뢰도 계수

요인1 :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alpha=.62$)

- 10 엄마, 아빠께 야단 맞을 때
- 11 엄마, 아빠께 매 맞을 때
- 31 친구와 싸울 때
- 13 선생님께 야단 맞을 때
- 8 친구가 때리거나 꼬집을 때

요인2 : 불안-좌절감 경험함 ($\alpha=.68$)

- 7 친구들이 놀랄 때
- 26 잘못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여 엄마나 아빠한테 혼날 것 같을 때
- 24 내 얘기를 엄마, 아빠가 제대로 들어주지 않을 때
- 16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게 하거나 먹을 수 없을 때
- 9 가족이 내가 좋아하는 TV프로그램(예: 만화)를 못보게 하거나 보고 있는 채널을 바꿀 때
- 25 엄마, 아빠가 함께 놀아주지 않을 때
- 15 친구나 동생이 장난감을 빼앗아 갈 때
- 1 내가 원하는 물건을 엄마, 아빠가 사주지 않을 때 (예: 장난감, 과자, 옷, 신발 등)
- 3 집에 혼자 있는 것
- 4 어두운 곳에 있는 것
- 27 엄마가 듣기 싫은 소리(잔소리)할 때 혹은 같은 말을 두 번 이상 할 때
- 14 밖에서 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하는 것

요인3 : 자존감 상함 ($\alpha=.66$)

- 19 엄마나 아빠가 나에게 어떤 것(예: 그림 그린 것, 만든 것, 공부)에 대해 못한다고 말할 때
- 21 엄마나 아빠가 친구나 형제보다 내가 더 못한다고 말할 때
- 20 친구들은 잘하는데 나는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 22 선생님이 나를 예뻐하지(사랑하지) 않을 때
- 23 엄마나 아빠께 칭찬받고 싶은데 칭찬받지 못할 때
- 6 친구들이 놀이에 끼워주지 않을 때

전체 척도 $\alpha=.80$

2) 집단 간 차이 검증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정상 가정의 유아 집단과 결손가정의 유아 집단 간에 유아 스트레스 점수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유아의 연령은 본 연구 대상 연령인 만 3-6세의 범위로 동일하게 하였다.

정상 가정 유아 40명과 이혼 가정·편부모 가정 유아 40명에 대한 스트레스 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t-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정상 가정 유아와 이혼·편부모 가정 유아의 집단별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증 결과

집 단	N	M	SD	t
정상 가정 유아	40	총점 23.40	총점 7.32	
		평균 1.02	평균 .32	
				-5.76***
이혼· 편부모 가정 유아	40	총점 35.00	총점 10.42	
		평균 1.52	평균 .45	

*** $p<.001$

정상 가정 유아와 이혼·편부모 가정 유아의 스트레스 점수를 비교하기 이전에 동분산성 검증을 한 결과 동분산이 아닌 것으로 검증되었다($F'_{39,39} = 0.0300$, $p < .05$). 따라서, Unequal Variance의 통계량을 사용하였다. <표 6>에서 보듯이 정상 가정 유아의 스트레스 점수와 이혼·편부모 가정 유아의 스트레스 점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t[69.9] = -5.76$, $p < .001$). 즉, 결손가정 유아가 정상 가정 유아보다 일상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는 의

1. 척도 제작

본 연구에서는 학령 전 유아(만 3~6세)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연구에 임하였다.

예비연구에서 추출된 31개 문항으로 검사지를 재구성하여 389명의 유아에게 본검사를 하여 예비 연구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의 구조를 살펴보았고 문항을 추출하였다. 요인의 구조는 예비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3개 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각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불안-좌절감 경험함', '자존감 상함'의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문항 수는 31개에서 23개로 축소되었다.

문항 선정은 기초자료 분석 결과 문항을 구성한 후 전문가들의 안면 타당도 검증을 거쳐 1·2·3차 예비검사 실시 과정에서 보인 유아들의 반응을 고려하였다. 즉, 예비검사 실시 과정에서 유아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낱말이나 문장에 대해 그 표현을 수정하였다. 또한, 문항내용이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이어서 그림 자료의 제작에 난점이 있었던 문항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삭제하였다. 이는 애매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내용의 문항은 피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문항을 작성해야 한다는 문항작성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한국심리학회, 1992; Murphy & Davidshofer, 1991).

본 연구에서 제작한 척도는 기초 조사를 이론에서 도출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유아와 학부모, 교사로부터 직접 응답 받은 개방식 내용으로 시작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한국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실제적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절차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신뢰도

본 연구(N=389)에서 제작한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0$ 이었으며, 각 요인별로는 .62, .68, .66을 나타냈다. 만 3~7세 유아의 지능을 측정하는 한국형 웨슬러 유아지능 검사(Korean WPPSI)의 신뢰도가 .51~.90인 것으로 나타났음을(박혜원, 곽금주, 박광배, 1996) 고려해 볼 때, 능력검사가 아닌 23개 문항으로 구성된 본 유아 용 스트레스 검사에서 전체 $\alpha=.80$ 을 나타낸 것은 양호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Murphy & Davidshofer, 1991).

Harter와 Pike(1980, 1983)도 유아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을 이용하여 척도를 제작하였는데, 24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이용하였다.

문항 수가 많은 검사는 시간적·경제적인 면에서 낭비가 많고(Murphy & Davidshofer, 1991), 더욱이 본 검사의 대상이 학령 전 유아들임을 고려할 때, 그리고 아동의 자아개념 척도 제작에 관한 선행 연구(Harter & Pike, 1980, 1983) 결과에서 나타난 문항수(24개)와 비교해 볼 때 23개 문항으로 추출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론-주도적인 방법(theory-driven method)에 의해 제작된 척도가 자료-주도적인 방법(data-driven method)에 의해 제작된 척도보다 내적 일관성이 높으므로 자료-주도적인 방법에 의해 제작된 본 척도의 내적 일관성 지수인 Cronbach's $\alpha=.80$ 의 값은 신뢰도의 양호한 수준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Murphy & Davidshofer, 1991).

3. 타당도

1) 안면 타당도

본 연구에서 제작한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안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기초조사에서부터 1·2·3차 예비검사 및 본검사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에 걸쳐 연구자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여러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

2) 요인의 구조

본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예비 연구와 본 연구 모두에서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요인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은 '비난·공격적 상황에 점함', 요인 2는 '불안-좌절감 경험 함', 요인 3은 '자존감 상함'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예비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요인의 구조를 나타냄으로써 요인의 구조가 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로써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설명분산 값은 79.73%(요인 별로 각각 19.00%, 34.86%, 25.87%)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요인의 전체 구조는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척도의 요인 간 상관계수는 요인 1과 요인 2의 $r= .45$, 요인 2와 요인 3의 $r= .52$, 요인 1과 요인 3의 $r= .26$ 을 나타냈다. '요인'들이란 곧 이론변수이며 이론변수들 간에 상관이 없는 가운데 이론구조가 구축되는 경우는 드물다(이순묵, 1994). 즉, 요인들 간의 관계는 서로 간의 상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논의되어질 수 있다. 한편, 요인 간 상관이 너무 크면 (예: 중간정도 크기를 상회) 요인의 수효를 하나 줄여서 다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Gorsuch, 1983). 따라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하나의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척도로서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3) 집단 간 차이 검증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와 준거관련(공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집단 간 차이 검증을 t-검증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는 이론에서 도출하여 만든 척도가 아니라 자료에서 도출하여 제작된 척도이므로 집단 간 차이검증을 함으로써 더욱 더 본 척도의 타당도를

입증할 수 있다(Murphy & Davidshofer, 1991). 따라서, 정상 가정 유아 집단과 결손 가정 유아 집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스트레스 점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이는 부모의 이혼이 아동의 사회적·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된다는 Kurdek와 Blisk (198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유아 스트레스의 요인 중 하나로 부모의 이혼을 지적한 Honing(1986)의 연구, 그리고, 편부모 가정의 유아가 받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보고한 Creighton(199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점수로 정상 가정 유아 집단과 결손 가정 유아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제작되지 않은 학령 전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유아가 직접 응답한 반응에 기초하여 스트레스 척도를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육자, 유아교육 관련기관 종사자, 학부모나 교사 및 일반 성인들이 유아를 이해하고 교육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작한 스트레스 척도가 결손가정의 유아를 정상 가정의 유아로부터 구분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아의 진단과 치료교육에 유용한 가치를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유아나 문제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유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본 연구 결과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 조사에 이어 1·2·3차에 걸친 예비 연구와 본 연구로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제작하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재검증하기 위한 계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와 타 척도 간의 상관을 내어 봄으로써 준거관련(공준) 타당도를 검증해 보는 연구가 보완되어야겠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광범위한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영미(1996).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가족변인과 성별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나림(1996). 유아의 또래간 인기도에 따른 스트레스 행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범종(1994). 『SPSS/PC⁺ 사용법과 통계분석기법 해설』(서울: 학현사).

박혜원, 곽금주, 박광배(1996). 한국형 유아지능검사(WPPSI)의 표준화: 표준화연구(1),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1), 60-70.

백영균(1995). 『통계분석을 위한 SPSS/PC⁺ 활용』(서울: 학지사).

안라리(1995). 유아교육기관의 질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염현경(1998).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1), 67-82.

오택섭(1994).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법: SAS·

SPSS/PC⁺』(서울: 나남출판).

이순복(1994). 요인분석의 관행과 문제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7(1), 1-26.

_____ (1995). 『요인분석 I: 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중심으로』(서울: 학지사).

이영준(1993). 『SPSS/PC⁺를 이용한 다변량분석』(서울: 석정).

이정은(1992).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일상적 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종구(1993). 『실험 및 조사자료 분석을 위한 SAS의 이해와 활용』(서울: 성원사).

천민필(1993).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심리학회(1992). 심리검사 제작의 이론과 실제. 1992년 제 10회 동계연수회.

Amato, P. R. (1988). Long-term implications of parental divorce for adult self-concept. *Journal of Family Issues*, 9, 201-213.

Amato, P. R. & Booth, A. (1991). Consequences of parental divorce and marital unhappiness for adult well-being. *Social Forces*, 69(3), 895-914.

Anastasi, A. & Urbina, S. (1997). *Psychological testing*. Prentice-Hall, Inc.

Band, E. B. & Weisz, J. R. (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Children's perspectives

- on coping with everyda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47-253.
- Barton, M. L. & Zeanah, C. H. (1990). Stress in the preschool years. In L. Arnold(Ed.), *Childhood stress*. John Wiley & Sons, Inc.
- Blascovich, J. & Tomaka, J. (1991). Measures of self-esteem. In J. P. Robinson, P. R. Shaver., & L. S. Wrightsman (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Academic Press, Inc.
- Burts, D. C., Hart, C. H., Charlesworth, R., & Kirk, L. (1990). A comparison of frequencies of stress behaviors observed in kindergarten children in classroom with developmentally appropriate versus developmentally inappropriate instrumental practic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 407-423.
- Chandler, L. A. (1987). *Childhood stress: The teacher's rol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65th, Chicago, IL, April 20-24). ERIC No. ED 285 369.
- Creighton, S. J. (1993). *Child abuse trends in England and Wales 1988-1990*. London: NSPCC.
- Davis, M. & Emory, E. (1995). Sex differences in neonatal stress reactivity. *Child Development*, 66, 14-27.
- Demo, D. H. & Alan, C. A. (1988). The impact of divorce o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619-648.
- Elkind, D. (1981). *The hurried child: Growing up too fast too soon*. Reading, MA: Addison-Wesley.
- Ethier, L. S. & Freiniere, P. J.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tress and preschool children's aggressiveness in single-parent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8(3), 273-289.
- Gorsuch, R. L. (1983). *Factor analysis*(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Gunnar, M. R., Porter, F. L., Wolf, C. M., & Rigatuso, J. (1995). Neonatal stress reactivity: Predictions to later emotional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66(1), 1-13.
- Haapasalo, J. & Tremblay, R. E. (1994). Physically aggressive boys from ages 6 to 12 family background, parenting behavior, and prediction of delinquen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5), 1044-1052.
-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revision) for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 _____. (1998). The development of self-represent. In W. Dam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 553-617). Fifth Edition. John Wiley & Sons, Inc.
- Harter, S. & Pike, R. G. (1980). *The pictorial*

-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 _____. (1983). *Procedural manual to accompany: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 Henniger, M. L. (1994). Play: Antidote for childhood stres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05, 7-12.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 (1982). Effects of divorce on parents and children. In M. E. Lamb (Ed.), *Nontraditional familie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_____. (1985). Long-term effects of divorce and remarriage on the adjustment of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4, 518-530.
- Hodges, W. F., London, J., & Colwell, J. B. (1990). Stress in parents and late elementary age children in divorced and intact families and child adjustment.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14(1), 63-79.
- Honing, A. S. (1986). Stress and coping in children(part1). *Young Children*, May, 5-63.
- Huffman, L. C. & Carmen, R. (1990). Prenatal stress. In L. E. Arnold(Ed.), *Childhood stress*. John Wiley & Sons, Inc.
- Johnson, J. G. & Rornstein, R. F. (1991). Does daily stress independently predict psychopatholog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0), 58-74.
- Kurdek, L. A. & Blisk, D. (1983). Dimensions and correlates of mothers' divorce experiences. *Journal of Divorce*, 6(4), 1-24.
- Lazarus, R. S. & DeLongis, A. (1983). Psychological stress and coping in aging. *American Psychologists*, 38, 234-254.
- Lazarus, R. S., DeLongis, A., Folkman, S., & Gruen, R. (1983). Stress and adaptational outcomes: The problem of confounded measures. *American Psychologist*, 40, 770-779.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ed Company.
- Lobo, M. L. (1990). Stress in infancy. In L. E. Arnold (Ed.), *Childhood stress*. John Wiley & Sons, Inc.
- London, R. A. (1996). The difference between divorced and never-married mothers' participation in the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program. *Journal of Family Issues*, 17(2), 170-185.
- Murphy, K. R. & Davidshofer, C. O. (1991). *Psychological testing: Principle & applications*. Second edition, Prentice-Hall, Inc.
- Norusis, M. J. (1986). *SPSS/PC+*. SPSS, Inc.
- O'Brien, R. W. & Iannotti, R. J. (1990). A

comparison of mothers' and children's reports of life stress in the children's live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19 495.

childhood in areas of expanding preschool education. In B. Spodek (Ed.), *Today's kindergarten: Exploring the knowledge base, expanding the curriculum*. New York: Teacher College Press.

O'Brien, S. J. (1988). Childhood stress: A creeping phenomenon. *Childhood Education*, 65, 105-106.

Parfenoff, S. H. & Jose, P. E. (1989). Measuring daily stress in childre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14 206.

Trad, P. V. & Greenblatt, E. (1990). Psychological aspects of child stress: Development and the spectrum of coping responses. In L. E. Arnold (Ed.), *Childhood stress*. John Wiley & Sons, Inc.

Wallerstein, J. & Kelly, J. (1982). *Surviving the breakup*. New York: Basic Books.

Warm, R. (1989). *Improving stress-related behavioral indicators in the preschool classroom through prevention and intervention*. ERIC No. ED 307 049.

Waters, W. F., Rubman, S., & Hurry, M. J. (1993). The prediction of somatic complaints using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Response Inventory(ANSRI) and the Daily Stress Inventory(DSI).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1(2), 117-125.

Wiedey, L. B. & Lichtenstern, J. M. (1987). *Academic stress in kindergarten children*. ERIC No. ED 310 865.

Zimiles, H. (1986). The social context of early

韓國心理學會誌 : 發達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Developmental

1999. Vol. 12. No. 2, 35-48

The Study of Preschool Children's Daily Stress Scale Analysis

-As for the Scale's Construct Validity Verification-

Hyun-Kyung Youm

Tae-Lyun Kim

Baewha Women's College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as a following study of the pilot test which develop preschool children's daily stress scale, is to develop final items for scale development and verify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From the pilot test, "experience anxiety-distress", "hurt pride", and "encounter criticized-violent situation" were found as three factors and 31 items were already selected.. Using the same method as the pilot test, the finally selected final 31 items were tested by 550 preschool children(age 3-6). The teachers of those children's were asked to observe their students' behavior and provide their professional evaluation. The reliability of the scale was the total $\alpha=.80$ and the calculation for each factor was .62, .68, and .66, respectively.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scale, content validity, construct validity, and criteria-related(concurrent) validity were tested. The content validity was verified several times by professional. Factor analysis, t-test were used to verify construct validity and factor analysis was proved to be similar to that of the pilot test which resulted in the same three factors and the number of items was further adjusted to 23, and the total explained-variable value was 79.73%. Inter-factor correlation for the three factors was measured at .45, .52, and .26, respectively. To verify the content validity of the scale, the t-test was conducted between a group of/ children from normal-family preschool children group and a group of children from single-parent preschool children group, and the difference between a group of children who showed normal-children group and a group of children who showed clinical-children group, and the result was significant($p<.001$, $p<.01$). This study was significant in that this was the first preschool children's daily stress scale developed yet in Korea with the direct response and input from Korean preschool children. Further study and research to re-verify the scale developed by this study may be necessary. Also, more field testing of the scale developed by this study through a greater number of preschool children is needed to achieve the standardization of the newly developed scale.